

썸3. 먹히는 나의 섹슈얼리티? 나의 섹슈얼리티가 온군 먹혀서 쾌재를 불렀던 기억들.

제 얘기를 먼저 하자면, 제가 성당 다닐 때나 학교 때 오빠들이 밥을 사주면서 ‘너는 이쁘니까 사줄께’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한테 그랬다는 건 아닌데 (웃음). 또 예전에 알바 할 때 사장언니가 자기가 손님들과 노는데 이리와 앉으래서 갔더니 손님들이 용돈을 주거나 택시비를 주었던 일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일정정도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서 비싼 선물 받으면 섹스 해주게 된다고 해요. 이런 식의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내가 적극적으로 내 섹시함을 믿고 무언가를 성사시켰다거나?^^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 내가 나의 여성성을 활용한 기억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였는데, 나보다 한두살 많은 형들이랑 있었는데, 전 오빠라는 말을 안써요 불편해서, 강남의 비싼 곳에서 술을 마셨는데 난 돈이 없고 형들이 돈을 좀 내줬으면 싶어서 ‘오빠, 이것좀 먹어도 될까?’ 그랬더니 맨날 형 소리만 듣던 그 친구가, 오늘은 오빠가 쓸게 이러면서 다 시키라는 거예요. ‘오빠’라고 부르는 나의 여성적인 태도?(웃음)가 효과를 발휘했구나.. 이런 기억이 있었어요.

- 2005년에 태국에 혼자 여행갔는데, 스위스 백인남자가 저한테 접근해서 같이 놀자, 자기 코리아 여자 처음인데 같이 놀자, 그래서 저도 여행지니까 정신줄을 놓으면서 같이 놀러다녔어요. 그 시선들, 백인남자와 동양여자가 같이 다닐 때 그 시선, 개가 밥값 괜히 다 내주고 그랬던 경험. 다 얻어먹고. 뭐 어때 여기 하루만인데, 그렇게 이용해봤던 경험. (잠은 안 자구요?) 잠은 충분히 자진 않았는데, 섹슈얼한 뭔가가 있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나, 내 정체성은 어떻게 되는거야- 뭐 이런걸 고민하게 하지는 않았고, 여행지라는 특이한 공간에서 순간적인 경험이어서 괜찮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했고. 백인남자가 동양여자에게 큰 가슴을 요구하지 않는, 애는 특이한 애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고, 또 그때 머리가 길어서 약간 먹히지 않았나....

- 저는 ‘여장’이라고 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먹혔던 건데. 학교 다닐 때 프로젝트를 하면 인쇄소를 많이 다녔는데, 굉장히 남성적인 공간들이었어요. 가기 전에 항상 머리를 뒤로 넘기고 목소리 사근사근하게 이쁘게 말하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한 성만 모여 있는 공간에 내가 성적인 대상으로 보여질 수 있는 희열이나 긴장감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빨리 싸게 해주지 않을까 라는 기대도. 근데 그분이 진짜 무료로 몇 번 인쇄를 해줬어요. 내가 먹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구요. 또 저는 엄마역할이나 언니역할에서, 그것도 사실 섹슈얼한 행동인데, 그런 행동에서 묘한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은 게 친구들이나 후배들 중에 귀엽고 애교 많은 친구들 있으면, 애인이나 친한 친구보다도 그 친구가 부르면 바로 달려가서 뭐 사주고 잘해줘요.

- 들으면서 저도 생각했는데 나도 이쁜척 하는데, 그럼 나도 활용하는건가? 이런 고민이 드는데. 먹고 싶은 게 있을 때, 혹은 나는 돈이 없는데 이런, 근데 그런게 섹슈얼리티를 활용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나는 왜 안 들었을까, 이런걸 생각해보면, 대충은 먹히는 관계 범위 안에서 제 기분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분이 좋으면 이쁜 척도 했다가 아니면 아닌 척했다가... 섹슈얼리티라는 게 일종의 스펙트럼이고, 짝 펼쳐지면 어디에선가는 좀 혼란스러운 거 같아요. 성적 긴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를 보면서 성적긴장을 느낄 때, 그 사람도 긴장을 느낄 순 있지만 성적인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런 간극을 저는 그걸 약간 즐기는 것 같은데, 부담스럽진 않고 고마워요(웃음)

요즘 제가 속으로 고민하는 것은 평범한 대화 속에서 어떤 코드가 성적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일까. 그래서 성적이다, 라는 거, 섹슈얼리티가 참 모호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성적긴장감이 뭘까요?

- 저도 계속 모르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 저한테는 일단 설레임이에요.
- 누군가는 위협이고 스트레스이겠지요.
- 모르는 불특정인 앞에 서도 긴장감이 느껴지는데, 어떨 때는 설레어서 긴장하고, 남성이어서 긴장하고, 폭넓은데 모호하고 결이 너무나 미세하게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문화적인 코드들이 확실히 작용하는 것 같아요.

- 저는 FTM(Female To Male 여성의 몸에서 남성의 몸으로 성전환 하는 경우) 분들 만나서 논문을 쓰면서 상근자 마인드, 부탁하고 조직하고 말랑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다보면 그게 여성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도 사근사근하고 친절하고. 사람들이 니가 이렇게 성격이 좋았냐고 그럴 정도로. 낯선 사람에게 너무 잘 그러는데. FTM분들이 여자가 궁한데 (나는)이상한 여자지만 어쨌든 여자가 너무 친절하게 하고 언제든 연락하시라고 하니까 헛갈려서 전화가 와요 정말. 니가 좋다. 근데 거부하기 너무 어렵고. 논문 써야 되니까.(일동 웃음)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 지 모르겠는 거죠.

썸4. 기분 묘하게 내가 팔리는 느낌?

나의 섹슈얼리티가 기분 좋은 경험을 만들어 낼 때도 있지만, 내 섹슈얼함을 가지고 제 3자들의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 받아보신 적이 있거나, 거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분이 좋지도 않고 이것 어떻게 바라봐야 해, 하던 기억들도 있나요?

- 내가 어떤가를 돌아봤는데, 누가 나를 섹시하게 보는 거? 공연을 할 때 섹시하다 그런 얘기 듣는데, 그게 무대에 올라갔을 때는 두렵거나 불편하지 않은데, 무대를 벗어났을 때 그런 시선이나 말들을 들었을 때는 너무 싫어요. 나는 누구한테 성적인 대상으로 보이고 싶지 않고, 무대에서 내려오면 빨리 분장도 지우

고, 옷도 얼른 갈아입고... 레즈비언들이 많은 데에 가면 긴장감을 느끼는데, 왜 그러냐면 나를 여자로 보는 사람들인거죠(웃음). 부치 언니들 만나면 부담스럽고 그래서 긴장감이 있어요. 후덕한 안사람을 찾는 부치언니들.

- 저는 저를 여자들이 섹시하게 봐주는 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웃음), 저는 여성단체에서만 일 했어서 남자들과 있는 단체에서 일하는 게 (지금) 처음인데, 성적인 긴장감이 흘러다녀요. 제가 일하는 공간에 있는 여자들은 저를 성적 대상으로 안 봐주고, 남자들은 저한테... 그런 기대를 접었죠. 그게 제가 (그들에게) 어필하는 태도나 외모를 갖추고 있지 않고, 특히 남자에게 성적 대상이 되려면 가슴이 중요한데, 저는 등인지 가슴인지 잘 모르겠고, 이런 저의 신체적인 조건이 제 삶을 편하게 해주는 거죠. 그런 싸인을 주지 않고, 여자처럼 살랑거리지 않고, 그런 것들을 통제하고 조절이 가능하다는 약간의 자신감이 있구나.. 이후에는 삶이 편해졌다고 생각하는데..

- 제가 요새 머리가 길어서 ‘여장’을 하고 다니는데, 몇 해 전에 공연하면서 정장을 입었어요. 제 차 앞에 평행주차가 돼있었는데 원래 혼자 할 수 있는데 그날은 신발을 불편한 걸 신어서 힘든 거예요. 근데 나의 복장을 보니 될 것 같은 거죠(웃음). 그래서 앞에 서있는 차한테 차를 같이 밀어달라고 다소곳하게 얘기했더니 흔쾌히 밀어주더라구요. 남자들 부려먹을 때 여성적인 복장이 먹히는구나, 이런 적이 있었죠.

- 연애 관계에서 주고받는 거래는 일상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연애를 하면 할수록 연애와 성매매가 뭐가 다를까? 너무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선물을 계속 보내준다든지, 사실 되게 낭만적으로 보이는 상황이기도 하고, 기분 좋기도 하고, 내가 상대방에게 섹시하게 인정받은 거 같다는 생각도 들고, 보상도 해줘야 할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 나는 섹슈얼리티가 이용되었다고 느꼈던 거는, 내가 이제 이주노동자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항상 이 문제가 중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주노동자를 조직하고 다 남성들이고, 술을 밤에 마셔야 되고,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또박또박, 눈웃음도 치면서 설명도 하고 이래야 하니까... 그분들한테 엄청나게 친절로 다가 오잖아요. 나는 그걸 또 이용하고 있는 거지. 남자들이 조직하는 것보다 제 여성성으로 조직하는 것 같아요. 먹이기 때문에. 한편 내가 왜 이렇게 웃고 있을까. 왜 이렇게까지 수그리면서 이러고 있나. 그런 거를 이용도 하면서 (나의) 발목을 잡는 것도 같아요. 술 먹으면서 상대가 저를 만지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만지면 싫고, 이걸 잘 모르겠어요. 상대도 헛갈릴 것 같아요. 어느 날엔 친절했다가 어느 날엔 비판도 하네? 이런 거. 동지들이 아무렇지 않게 어깨동무하거나 팔짱끼거나 이럴 때는 나를 여자로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빠. 근데 내가 조직화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여지를 두는 것 같기는 해요. 이런 게 혼란스럽고. ‘필요할 때 문제 있을 때 연락하세요’ 말은 하는데, 또 그냥 친해질 수 있잖아 동지 관계 아니고. 그냥 친한 걸로 연락할 수도 있는데 어느 선을 넘어서 연락이 오면 그거는 싫은 거. 넘나들어 나는. 이주 동지들 만나는 순간 어떨 땐 내가 권력을 갖고 있을 때가 있고, 그들이 남성이라 권력을 갖게 되기도 하고. 줄다리기가 되는 거 같애.

성적 긴장감이 있는 관계라든지, 잉여가치가 생기는 경험들을 다 해보신 거 같은데, 반대로 내가 누군가의 무엇을 소비한다는 느낌, 상대방의 외모를 보면서 무언가를 해주고 그랬던 적. 겪어보신 적도 있나요?

- 우리 애인이 제게 몸을 잘 안 주는데, 제가 오천원 줄게 한번만 만지게 해줘 (웃음) 그러면 상대가 “그래, 딱 한 번만 만져봐” 이러고... 제 애인은 활동 커뮤니티에 있는 게 아니고 저를 만나서 페미니스트들 많이 만나고 그런건데, 여성의 자기결정권 이런걸 듣고 학습을 한 거예요. ‘내 몸의 주인은 나야’ 이러면서.(웃음)

썸5.

우리 일상이 성적인 거래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라고 보는 부분.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 아까 연애가 성매매, 성적 서비스라고 하신 것 같은데, 연애가 그거와 매치되는 게 있나요? 연애가 굳이 성관계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편하고 좋고,, 성관계는 부차적인거 아닌가요. 그런 순수한 사랑, 그런 거 있잖아요. 남성들은 진도가 어디까지 갔냐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성들도 있지만, 저는 그런 사랑을 좋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럴 땐 말하지 않아도 합의가 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가 아까 얘기한 연애관계에 성관계가 없는 사이였거든요? 친밀감이나 나를 기다려준다는 느낌을 주고받았는데, 그 사람은 정말 누군가와 연애관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처음이었던 거고 그래서 음... 저는 누군가 나를 좋아해주고 선물도 주고 지켜봐주고 이런거. 당시 제 상황이 장기간 연애를 안 했고 주변의 연애하라는 성화에 스트레스를 받는 와중에 연애를 시작한 거라서.. 그 사람이 주는 선물은 (나는)연애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지만 어떤 보상이 되었던 거죠. 성관계 요구한 건 없이.

- 그런 맥락에서 알 수 없는 암묵적인 동의라고 해야 하나, 여자 친구가 여관을 가면 성관계를 허락한 것이다,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 논란이 많거든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같이 놀다가 여자 친구가 여관에 가자고 해도, 잠만 그냥 잘려는 걸 수도 있는데, 남자친구는 암묵적 동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까 말씀하신 교환이라고 생각하는 지점 있잖아요.

- 이거는 아까 얘기된 애인관계에서의 암묵적인 교환과 동의와, 이런 것과는 좀 다른 서로 합의되지 않은, 약간 폭력으로 읽어낼 지점이 있는 사례인 것 같아요.

- 근데 그걸 거부를 잘 못 하시는 여성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반송낙? 어떠신가요. 애인분들이 있으면, 성관계를 강하게 요구하면 강하게 거부가 어려우신가요?

- 그 관계 자체를 봐야죠. 선물 주는데 거부할 수 없는 관계라면 성관계를 강하게 요구할 때 거부하기 힘들겠죠. 이미 솔직하게 얘기할 수 없는 관계면. 여자 친구가 여관을 섹스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동의하고 가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건데 그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에 그거를 중단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거 같아요. 저도 예전에 나이 어린 되게 예쁜 팸을 사귀었는데 금방 깨졌어요. 깨진 이유는, 기대가 달랐던 거죠. 제가 우리집에 놀러오라고 해서 밥을 해주고(일동 웃음) 이래서 한번 자볼까 했는데, 그 친구가 여성주의자였거든요?(일동 웃음) 저한테 “누가 몸에 손대면 침해당하는 기분이야”라고 해서 깜짝 놀라서 중단하고, 금방 깨졌어요.(일동 웃음) 서로 기대하는 게 다른 거고, 그게 다르면 헤어지거나 아니면 다시 협상하거나.

1부에서 개인적인 경험으로서 활용하는 섹슈얼리티를 이야기 했습니다. 이와 연결해서 우리는 우리가 성매매와 무관하게 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해요. 성매매 여성의 피해와 그 맥락의 해소에 대해 연대하고자 하는 의지들도 보이고요. 그래도 그 의지가 좋은 취지라 할지라도 성판매 여성에 대한 타자화는 경계할 만 한 것 같습니다.